

레저 열풍...국내 자동차 시장 SUV 大戰 온다

앞으로 2~3년간 국내 자동차시장에서 전례 없는 '프리미엄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대전(大戰)'이 펼쳐질 전망이다. 레저 붐을 타고 SUV 시장이 쑥쑥 커지는 가운데 제네시스, BMW,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 등 주요 업체가 앞다퉀 고가의 SUV 라인업을 줄줄이 선보일 예정이기 때문이다.

우선 현대차그룹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의 자사 첫 SUV가 우선 눈길을 끈다. 업계는 제네시스가 지난달 뉴욕모터스에서 처음 공개한 수소연료전지 SUV 콘셉트카 'GV80'을 토대로 2019년께 양산

형 모델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차량에 탑재될 파워트레인(동력전달장치) 종류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모터스에서 공개된 GV80에는 수소연료와 전기충전이 모두 가능한 친환경 플러그인 수소연료기술이 적용됐다.

지난해 메르세데스-벤츠에 수입차 판매 1위 자리를 내준 BMW도 SUV 라인업 강화에 나선다. BMW는 올해 4분기 뉴X3 풀체인지 모델을 시작으로 내년 뉴X2(신모델), 뉴X4(이하 풀체인지), 뉴X5를 차례로 내놓는

현대차 제네시스 SUV 콘셉트카 'GV80' 2019년 출시 BMW 올 뉴X3 풀체인지·아우디 Q8 콘셉트 내년 나와 벤츠 '더 뉴 GLC 350e 4매틱' 올해 말 국내 출시 예정

특히 소형 SUV급인 뉴X2는 BMW가 라인업에 처음 추가한 모델이다. 지난 2016년 파리모터쇼에서 처음 공개된 X2 콘셉트 모델이 토대다. BMW는 2020년쯤에는 초대형 SUV X7도 처음으로 선보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젤게이트'로 홍역을 치른 아우디도 SUV 신차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1월 디트로이트모터쇼에서 선보인 Q8 콘셉트와 지난 3월 제네바모터쇼에서 처음 공개한 Q8 스포츠 콘셉트를 토대로 한 대형 SUV 2대를 각각 내년에 출시할

예정이다. Q8 콘셉트와 Q8 스포츠 콘셉트 양산형 모델은 메르세데스-벤츠 라인업 최상위급인 GLS, BMW의 X7 등과 경쟁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지난 3월 서울모터쇼에서 공개한 친환경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모델 '더 뉴 GLC 350e 4매틱'을 올해 말 국내 출시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GLE 등 기존 SUV의 신차 외에 새로운 라인업도 추가로 내놓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글로벌 업체가 프리미엄 SUV 신차 출시 경쟁을 하는 것은 관련 시장이

갈수록 커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전체 자동차시장에서 SUV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4% 수준에서 지난해 29%대로 늘어났다. 특히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는 SUV 판매 비중이 전체의 36%를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 관계자는 "저유가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실용성을 강조하는 트렌드가 이어지면서 SUV 성장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SUV는 글로벌 완성차 업계 판도를 결정하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성기자bigkim@연합뉴스



메르세데스 벤츠 더 뉴 GLC 350.

<메르세데스 벤츠 제공>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현대차 제공>

삼성전자 '5GAA' 이사회 멤버 선임

삼성전자가 미래 자동차를 연구하고 상용화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인 '5GAA'(5G Automotive Association)에서 이사회 멤버로 선임됐다.

지난해 9월 설립된 5GAA에는 완성차 업체, 통신 사업자, 통신장비 제조사 등 40여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5세대(5G)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커넥티드 카와 자

율주행차의 이룬 상용화가 목표다. 5GAA는 국제 이동통신 표준화 기구인 3GPP에 '시장 대표 파트너'로 동참하는 등 자동차 산업과 통신 산업을 잇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하다.

이번 선임으로 삼성전자는 5GAA 이사회 멤버 중 유일하게 전장 분야(Tier-1) 기업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선임을 계기로 지난 3월 인수를 완료한 허만과의 시너지를 본격적으로 창출할 계획"이라며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한 커넥티드 카 상용화 노력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현대차 전문 운전 기술 전수 '드라이빙 아카데미' 확대

현대자동차는 고객에게 전문적인 운전 기술을 전수하는 프로그램인 '2017 현대 드라이빙 아카데미'를 확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현대차는 드라이빙 아카데미를 지난해 처음 개설하고 시범 운영했으며, 올해는 참가자 수준에 맞춰 프로그램을 세분화

했다. 올해 교육 과정은 ▲재미있고 안전한 운전의 기본을 배우는 '핀 앤드 세이프티'(Fun & Safety) 클래스 ▲스포츠 드라이빙의 기초를 익히는 '스포츠(Sport) 클래스 ▲아마추어 레이스 입문을 위한 '레이스'(Race) 클래스 등으로 나뉜다.

현대차는 이 가운데 핀 앤드 세이프티 클래스의 상반기 참가자를 6월 2일까지 모집한다.

해당 클래스는 대한자동차경주협회(KARA)의 공인 레이싱 스킬 인증 프로그램이다.

1년 이상의 운전 경력이 있으면 누구나 현대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참가 여부가 확정된다. 참가 비용은 1인당 3만원이다.

/연합뉴스

벤츠·BMW 처음으로 일본보다 한국서 더 팔렸다

아우디·폴크스바겐 등 판매 금지 영향 벤츠 3000대, BMW 2000대 더 판매

독일의 양대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인 메르세데스-벤츠와 BMW의 한국 내 판매량이 올해 처음으로 일본 내 판매량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입차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내에서 벤츠는 2만4877대, BMW는 1만8115대가 판매돼 작년 동기 대비 48.0%, 32.4%가 각각 늘어났다.

반면 올해 1~4월 일본에서는 벤츠 2만1365대, BMW 1만5818대가 각각 판매돼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0.7%, 2.2%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일 수입차 시장에서 벤츠와 BMW의 판매를 비교했을 때 한국에서의 판매량이 일본을 앞지른 것은 올해가 처음이

다. 판매대수를 비교해보면 올해 1~4월에 벤츠의 경우 한국이 일본보다 3000대 이상을 더 팔았고, BMW의 경우도 한국이 일본보다 2000대 이상 더 많이 팔았다.

벤츠와 BMW의 올해 한국시장 평균 성장률이 40%에 달하는 만큼 앞으로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의 판매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현상은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아우디·폴크스바겐 등 일부 수입차 업체의 판매 금지 등의 영향으로 벤츠와 BMW로의 편중이 더욱 심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4월까지 양국의 전체 수입차 시

장은 한국이 7만5017대, 일본이 9만6877대로 일본이 여전히 앞서 있다.

그러나 올해 1~4월 벤츠와 BMW 판매가 국내 전체 수입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 늘어나 57%에 이르렀다. 이는 작년 동기(41%)보다 무려 16%포인트나 증가한 것이다.

일본 수입차 시장에서 두 회사의 비중이 작년(1~4월 40%)과 올해(1~4월 38%)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로써 한국은 아시아에서 벤츠와 BMW의 수입이 가장 많은 국가가 됐다.

중국의 경우 벤츠와 BMW 모두 현지 기업과 합작 공장을 설립해 차량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만큼, 한국이 사실상 벤츠와 BMW의 아시아 최대 수입국이 된 셈이다.

/연합뉴스

적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초대 화랑 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궁동 54-2) 동양화·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062)222-2516, 010-2681-3113	청학 철학원 북구우치로 39-1 (중흥신협옆2층) 작명, 사주, 운세, 궁합, 택일, 시명, 승진, 사업, 재물, 직업, 부부교습 및 전문 연구원 청학 서광호 ☎010-9866-2332	우리원 에너지 북구 중흥동 284-14번지 (튼튼정형외과옆) "영업용 친환경 세라믹 화구교체, 막히지 않고 그을음 없고 가스냄새 끝" 각지역 대리점 및 영업하실분 모집 ☎062)524-1512, 010-4607-1512	동양 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식당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고 전 방 동구 궁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062)224-4869	맘스터치 빛가람1호점 전남 나주혁신도시 빛가람중학교앞 단체주문 및 예약환영 "전화로 주문하시고 15분후에 매장을 방문하시면 바로 찾아가실수 있습니다." ☎061)333-2256	바른글씨교정원 북구 서암대로 186 성지빌딩 3층 전담전문사거리 약필글씨 책임교정원, 학원생 수시모집 교대, 사대, 임용반, 취업반, 감사반 원장 직접 개인지도 ☎062)525-9933, 010-8703-3378	갤러리 봄 동구 예술의 거리 20-6 회화, 설치, 조각 등 다양한 작품전시장 대표 최정화 ☎010-9078-1800	튼튼동물병원 동구 계림동 이마트상가층 각종 백신 및 미용 중성화수술, 호텔 각종애완용품 취급 전문 ☎062)511-7582, 010-3263-7582	한마음정육식당 북구 용봉동 159-9 (북구정 전대후문) 정육식당형 돼지고기전문점 돼지1마리(1kg) 37,000원, 돼지반마리(500g) 19,000원, 국내산삼겹살(250g) 12,000원 대표 김진표 ☎062)261-8292
6·92 (육구이) 북구 우산동 중문로 33-1번길 (우산초등학교 후문입구) 건강숯불석쇠구이, 숯불구이, 석쇠숯불곰탕 석쇠숯불막창 배달전문점 ☎062)464-0692	행복공인중개사 동구 중앙로 218번지 고객만족, 책임중개 대표 강인철 ☎062)225-3303	으뜸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 ☎062)263-5383, 010-6338-5383	신신 예술의 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고 흥 나루터 동구 지산동 705-9 (범원 뒷길) 하모(참장어), 사브사브 전문점 바다장어구이, 장어탕 대표 모복자 ☎062)222-3092	한국기담명리철학학회 북구 우산동 205-18번지 근린공원원 개인단체 환영(강의내용: 사주, 음력, 양력, 사주학, 수지학, 수축점, 이침) ☎062)432-1324
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 권리분석 대표 전병양 ☎062)263-2223	박 당 화 랑 동구 궁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석 당 화 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토 산 철 학 원 북구 두암동 예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국수나무용봉점 북구 용봉동 1091-4번지 (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	천수사백마장군 북구 중흥동 800-28 동부교육청일방로 인생상담, 병점, 사주, 궁합, 부적 영로 받습니다. 대표 허길배 ☎010-2828-2008